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제주 전문예술법인·단체

몰라서 지정 신청 안하고 알라도 신청 안한다

2010년 제주문화재단이 1호 10년제 18곳 법인·단체 지정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등 혜택 도문화예술진흥조례도 담아 실질적 변화 거의 없어 무관심

지난달 제주도는 제주도문화예술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모로 접수된 신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심의했다. 그 결과 올해 새롭게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이름을 올린 곳은 사단법인 제주민예총과 탐라미술인협회 두 곳이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 공개 모집 허용 등 일정한 혜택이 있지만 그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을 몰라서 신청 안하는 곳도 있지만 지정되더라도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

운 탓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예총·민예총도 최근예야 지정=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연 또는 전시 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신청 자격을 갖는다.

제주에서는 2010년 11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전문예술법인 1호로 지정된 일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10년 동안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는 18곳에 불과하다. 2010

년 첫 해 8곳이었고 2012년 1곳, 2016년 4곳, 2017년 1곳, 2018년 2곳, 2019년 2곳이다. 제주민예총이 올해 전문예술법인 지정을 추진했고 1962년 창립된 제주예총은 지난해에야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됐다. 12월 현재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제주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558곳에 이르지만 전문예술법인·단체는 10%에도 못미친다.

▶조례상 예산 지원·시설 제공 실효 없어=전문예술법인·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고 기부금품 공개모집이 허용된다.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일부나 전체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손급 산입도 가능하다. 전문예술법인 출연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전문예술단체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은 일정 한도 안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더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

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조항을 따로 뒀다. 2013년 6월 조례 개정에 따라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행사에 공공 공연장·전시장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같은 해 신설됐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문화예술법인·단체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거나 공공 문화기반시설 우선 대관 대상을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명패' 이상의 의미를 가지려면 조례에 잡혀 있는 문구가 아니라 실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해보인다. 다만 이 경우 지정 심의단계에서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춘 단체를 발굴해야 한다. 전선희기자



성창학의 '여정'.

푸른 바다 물고기떼 닮은 우리네 삶

성창학 포도갤러리 개인전 유리 조각 '...바다를 품다'

물고기들이 푸르른 바다를 떼지어 헤엄쳐 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 쉽지 않듯 해류를 따라 살아가는 물고기들의 모습은 우리네 사람살이를 닮았다. 유리 조각 작품을 벌여온 성창학 작가. 그가 서귀포시 안덕면 포도호텔 포도갤러리에서 펼쳐고 있는 '우리-바다를 품다'란 이름의 네번 째 개인전이다.

을 보면서 신기했다는 성 작가는 그 같은 기억을 작업으로 연결시켰다.

그의 작품은 유리를 녹여 만들어 지는 게 아니다. 유리를 깎아내고 외관을 다듬어 그 안에 색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이번엔 선보이는 '여정(旅程)' 연작 속 물고기떼는 인간 군상에 빚낸 형상이다. 어찌보면 개인의 삶은 저마다 다른 길을 가는 듯 하나 큰 흐름에서 보면 같은 운명체이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닌가 싶은 거다.

성 작가가 돌, 철 같은 친숙한 조각 재료 대신에 유리를 택한 건 그것이 지닌 투과성에 주목한 결과다. 외부만이 아니라 내부 공간의 움직임까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릴 적 투명한 유리구슬 속 무늬나 입구가 좁은 유리병 안의 커다란 배 모형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경원대학교 미술대학원 환경조각과를 졸업한 성 작가는 한국유리조형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제주조각가협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6월 시작된 전시는 2020년 2월 27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4)793-7021. 전선희기자

제주문화계 새해 임원 선출 총회 잇따라

예총·민예총 임기 만료 앞뒤 미협·작가회의·건축가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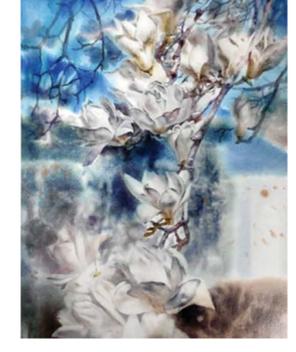
내년 제주 문화예술단체 수장들의 얼굴이 잇따라 바뀔 전망이다. 제주예총, 제주민예총을 비롯 제주미술협회, 제주작가회의,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의 임원 임기 만료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가 단독 임후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개선이 이루어지는 제주미술협회 총회는 내년 1월 18일 예정되어 있다.

제주예총은 현 부재호 회장의 4년 임기가 내년 2월에 끝이 난다. 연임이 가능한 자리인데 내년 1월 말쯤 열리는 이사회에서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준비에 나선 곳은 제주미술협회다. 제주미술협회는 제주대 미술학과 교수인 강민석 회장의 3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30대 지회장(부지회장) 선거 후보등록 신청서를 받았다. 지난 6일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회장 유창훈, 부회장 송창훈·이성중 후보

제주민예총도 2년 활동을 마치고 지난해 1월 한 차례 더 연임했던 강정호 현 이사장의 임기가 조만간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제주민예총 집행부는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작가회의 회장 임기도 내년 1월까지다. 제주건축가회 역시 임원 임기 만료를 앞둔 단체다. 전선희기자



찬 계절에 만나는 맑고 투명한 봄꽃

서귀포 하효동 버금갤러리 김원구 초대전 이달말까지

겨울 전시장에 복사꽃이 피어났다. 서귀포시 하효동(753-1번지)에 자리잡은 갤러리 버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원구 초대전이다.

초대전은 지난 10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즈음 갤러리를 찾으면 찬 계절 속에 따스한 봄 기운을 누릴 수 있다. 맑고 투명한 수채화로 그려낸 봄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5월', '묵련' 연작, '마음의 풍경' 연작, '자목련', '복사꽃', '길 위에서' 연작 등이다. '휴식', '원로', '선배'처럼 수채화로 빛어낸 인물화도 눈길을 모은다.

수채화가 김원구의 '묵련 2'

고재선 버금갤러리 관장은 "일상의 풍경, 인물 등을 잘 표현한 작품들을 보노라면 보고 또 보아도 다시 보고 싶은 그리움이 솟아나게 하는 마음이 든다"고 했다.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계속된다.

김원구 작가는 제주도문화진흥원, 제주현대미술관 초대전 등을 가져왔다. 이번이 일곱번째 개인전이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입주 작가로 한국수채화협회제주도지회장으로 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쏘지

제주극동방송 평화음악회

제주극동방송(지사장 한정은)은 10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제6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는 바리톤 김주택, 가수 자두, 감성재즈 오화평 트리오, 팝 소프라노 하은, 가스펠 듀오 제이스, 제주극동방송 전속 어린이합창단이 출연한다. 오후 7시부터는 프라임 타악기 앙상블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벌인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4)713-8100.

그림연 열여덟 번째 회원전

그림 연(緣) 열여덟 번째 회원전이 지난달 서울 인사동에 이어 제주 갤러리카페 다리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대에서 미술을 전공한 인연으로 꾸려진 연은 '연-달아'란 이름 아래 제주와 서울이라는 거리를 한계를 넘어 제주색을 펼치고 작업을 끊임없이 이어간다는 다짐을 실었다. 김다정 김민재 김지영 김지형 신승훈 양정임 오경수 한향선 현택식 등 9명이 출품했다.

토요문화유람 시민토론회

(사)제주문화포럼은 10일 오후 7시 제주시 전농로 문화공간제주아트에서 '일상으로의 여행, 토요문화유람'을 결산하는 시민토론회를 연다. 이날 심규호 제주국제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유정 평론가, 홍진숙 현 제주문화포럼 원장이 발제하고 고성환 마실감재 대표, 서재철 자연사랑갤러리 대표, 오상은 예술공간 오이 대표, 한영숙 문화기획자가 토론에 나선다. 064)722-6914.

현대여성제주작가협회전

사단법인 현대여성제주작가협회(이사장 문춘심)는 이달 12일까지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제주를 탐하다'란 이름으로 열번째 회원전을 연다. 현대여성제주작가협회는 한국화, 서양화, 공예, 서예, 문인화, 서각, 사진 등 7개 장르에 5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월 현대여성미술협회제주지회에서 사단법인체로 새롭게 탈바꿈하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http://www.hirentacar.co.kr

글로벌 4대 브랜드 SIXT 국내유일 파트너사

제주원렌트카

김포공항점

오픈기념 EVENT!!

제주도민 특별할인!

- ✓ 제주원렌트카 본사 직영지점으로서 제주도민을 위한 서비스와 혜택을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음서에.
- ✓ 김포공항에서 차량 인수/반납 가능합니다!
- ✓ 안전차차 가입으로 서울에서도 부담없는 편안한 여정이 가능합니다.
- ✓ 관공서·법인(개인)사업자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별도의 할인요금표 및 각종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문의 1588-3373, 02-6953-6402

- 김해공항지점 051-941-8351 · 부산KTX점 051-851-9588
- 강남지점 02-552-7288 · 서울역KTX점 02-569-4222